## 일 주 문



**녹색불교아카데미**

법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스님은 10월 12일~12월 7일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불교여성개발원서 '녹색불교아카데미'를 연다.



**사하불교 불자의 밤**

혜우 부산사하불교연합회장 스님은 10월 7일 오후 6시 약수사서 '제4회 사하불교 불자의 밤 한마당'을 봉행한다.



**이웃사랑 실천 봉사협약**

장곡 대전서구노인복지관장 스님은 9월 9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와 지구회관서 '이웃사랑 실천' 봉사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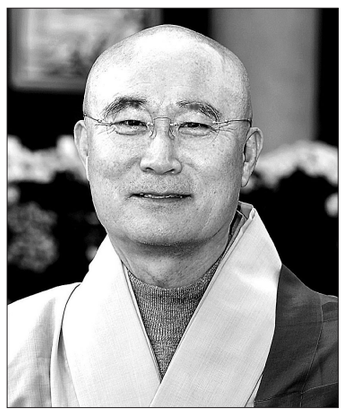


**불교공뉴스 6주년 기념식**

혜철 불교공뉴스 대표이사 스님은 10월 28일 오후 6시 30분 옥천군 명가웨딩홀서 '불교공뉴스·TV 창간 6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 "어린이포교 덕에 33년 佛緣"

### 창건 33주년 맞은 삼보사 주지 지원 스님



### 80년대 초 인법당 포교로 시작
### 어린이·청소년 활동 매진해
### 불교 세대전승 효과 얻어

"33년이란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긴 시간동안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게 다 삼보사와 인연을 맺은 어린이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역촌동 삼보사가 창건 33주년을 맞았다. 삼보사는 이를 자축하기 위해 9월 25일 경내서 신도들과 소소하게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지원 스님〈사진〉은 본지 인터뷰서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매끄럽게 이어졌다"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33년간 삼보사를 이끌어온 지원 스님은 1980년대 초 10·27법난과 종단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해 사회가 불교로부터 등을 돌리던 시기, 도심포교에 뛰어들었다. 당시 은평구는 서구식 주택단지가 대거 형성되면서 신개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기성세대 포교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 포교가 절실하다고 느낀 스님은 불광동(佛光洞)에 임시법당을 마련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도심지역 전법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곳이 은평구였죠. 불광동은 또 부처님 광명이 비춘다는 이름처럼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린이·청소년포교가 불교의 미래라고 생각해 전단지를 돌리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원 스님이 법당을 처음 짓고 찾아온 사람은 20명 남짓이었다. 아이들은 전무했다. 이에 스님은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포교전략을 세웠다. 한강의 기적에 따라 물질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던 그때,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은 소위 '대박'이었다.

"2명이던 아이들이 4명으로, 또 10명으로 늘었죠. 아이들 인성이 좋아지니 부모도 찾게 되고, 더 많은 가족들이 법당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명상법을 알려주고 함께 108배도 하면서 인내심을 길렀어요. 그러자 초등학생은 100명, 중고등학생은 120명 정도 절을 찾았습니다."

어린이·청소년포교로 성황을 이룬 삼보사는 인법당에서 전세방으로, 그리고 3년 만에 현 삼보사 터를 얻어 이전했다. 이제는 당시 절에 나왔던 아이들이 중장년이 돼 자녀들을 데리고 법회에 나온단다. 덕분에 유아법회도 봉행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곧 자모회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렇듯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하지 않은 것은 2가지. 아이들에 대한 지원 스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초하루 기도·인등비다.

"단 1명이라도 정성을 다해 포교하면 아이들은 감동을 느낍니다. 가슴에만 담아두고 부모에게 하지 않는 고민도 스님 앞에 털어놓기도 하고요. 기도비 등을 그 시절 금액으로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도 이런 인연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젊었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포교만큼은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10월 5일 창건된 삼보사는 더 많은 이들과 33주년을 기념하고자 10월 22~23일 행사를 연다.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산신재 기도, 오후 5시에는 주제가 있는 국악공연을 펼친다. 또 23일에는 서울강북지역 동남아 4개국 외국인근로자들을 초청해 양주 도리산 단풍맞이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02)352-6406 **윤호섭 기자**

## 현역·예비역 군승 한자리서 정진

### 조계종 군종교구, 군승안거 및 수련회 실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9월 20~22일 평창 월정사서 '불기 2560년 하계 군승안거 및 수련회'를 실시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140여 현역군승과 60여 예비군승이 참여한 안거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현안토의 △발전방안 모색 △독서토론 △설법문안 발표 등이 진행됐다. **윤호섭 기자**

## 4대 종교 축제, 전북서 성료

###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 5일간 펼쳐져



'내 안의 기쁨이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9월 20~24일 전주·익산·김제·완주·진안 등 전북지역서 펼쳐진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가 성대한 막을 내렸다. 불교·원불교·개신교·천주교 등 4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상생을 염원한 이번 축제는 첫날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종교열린마당과 종교문화마당, 세계종교포럼, 종교어울마당, 닫는 마당 등 총 여섯 마당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8월 지원환자 치료비 전달

### 생명나눔, 김준경·최정수 씨에 총 1573만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9월 12일 8월 치료비 지원 환자로 선정된 김준경·최정수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자리엔 생명나눔 이사 현조 스님, 최정수 씨와 보호자가 참석했다. 거동이 불편한 김준경 씨는 정지영 인천성모병원 사회복지사가 대리 참석했다. 폐결핵 및 기흉 환자 김준경(가명·43) 씨에겐 생명나눔 소식지를 통한 모연금 300만원과 BBS '거룩한 만남'을 통한 모연금 647만원을 전달했으며, 상세불명의 무형성빈혈 환자 최정수(가명·46) 씨에겐 '거룩한 만남'을 통한 626만원을 전달했다.

이사 현조 스님은 "긴 치료기간과 높은 비용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소중한 후원금으로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생명나눔은 월간 소식지와 BBS '거룩한 만남'을 통해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리고 치료비를 모금, 매달 지원 환자를 선정해 모연금을 전달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 명성 스님 출가 65주년 소설 봉정

### 운문사, 9월 20일 〈구름속의 큰 별 명성〉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9월 20일 법계 명성 회주스님 출가 65주년 기념 평전소설 〈구름 속의 큰 별 명성〉 봉정식을 경내 선열당서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함께했다.

명성 스님은 "1970년도 운문사에 온 후로 46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라 생각한다"며 "〈불치신경〉에 '욕교여 선자교', 남을 가르치고자 하면 먼저 자신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명성 스님 일대기 책에선 스님이 운문사에 온 후 40여 년 간 '한국 대표 비구니 교육 도량'으로 일으키기까지 혼신의 힘을 쏟았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 이·취임

### 9월 22일, 이금석 제 4대 회장 임명장 받아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이금석 제4대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는 9월 2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제3·4대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서 이금석 4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도권 불자들의 개별적 신행을 종단 차원 신도조직으로 아우르는 직할교구신도회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선봉에 서서 신도 역량을 강화하고, 교구 내 사찰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소통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직할교구사무처장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은 이 회장에게 임명장 전달 후 "직할교구신도회가 신도종책의 근간을 담아내고 실천하는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여한 200여 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인류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전법하고 포교할 것을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 "우리동네 골목에 꽃 피었어요!"

### 마천사회복지관, 정신여고와 벽화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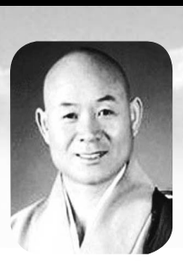
마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시형)은 9월 10일 정신여고 디자인동아리와 함께 지역 내 노후지역에 벽화그리기 사업 '골목에 꽃이 피었습니다'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마천사회복지관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 대상인 산성경로당 및 인근주택서 이뤄졌다. 주제는 책 〈팥죽할머니와 호랑이〉서 착안해 노인의 지혜를 표현한 그림으로 표현됐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 학 과 | 학 제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년 | 100명 | • 최종학력증명 1부<br>• 최종성적증명 1부<br>• 입학신청서 1부<br>• 여권용사진 10부 |
| 석사과정 | 3년 | 50명 | |
| 박사과정 | 3년 | 10명 | |
| 재경대학 | 4년 | 80명 |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